

새로운 시작...광주문예회관 대극장 9월 재개관

리모델링 진행 문예회관 가보니

객석·무대장비·음향설비 등 교체 음악홀 기능 향상, 마루형 바닥으로 객석 간격 넓히고 50석 내외 축소 소극장 5월 공사, 운영 인력 필요

광주 대표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광장 하경완·이하 문예회관) 대극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9월 재개관한다. 31년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최근 문예회관을 찾아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해 시작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20억원, 시비 277억원 등 모두 297억원을 들여 노후한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사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가 맡았으며, 현재 공연장 객석, 무대장비, 음향설비 등 전반적인 시설물 교체 및 정비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문예회관은 그동안 각종 시설물, 무대장비, 일반기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공연 및 관람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예회관 측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낙후된 조명 및 음향시설, 무대, 객석 등을 전면 교체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과 만나는다는 계획이다.

문예회관은 지난해 4월 선행공정을 시작으로 6월 주차장과 대극장 공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주차장은 준공검사를 마치고 개방된 상태다. 대극장은 9월 준공, 재개관 예정이며, 소극장은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월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곳은 대극장이다. 그동안 대극장은 출입문부터 객석, 무대시설 등 노후화된 장비 탓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먼저, 대극장에는 티켓박스가 신설된다. 기존에 로비 한 가운데 원형으로 존재했던 티켓박스 철거됐고 공연장 양쪽 출입문 사이, 공연 포스터가 붙어있던 자리에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비가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건 측은 현재 객석부와 무대부 공사를 진행중으로 무대기계·조명, 음향시설, 객석의자, 바닥 등 거의 모든 장비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오래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던 객석은 새 의자로 교체될 예정이며 천 소재로 구성된 바닥은 마루형식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1991년 건축 당시에 비해 관람객의 평균 신장의 증가로 인해 객석 간격, 너비 등을 넓혀 보다 편안한 좌석을 만들 예정이며, 객석 시공 후 음향 시뮬레이션, 가시권 파악 등을 통해 객석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1722석에서 50석 내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대기계·조명, 음향시설교체로 음악홀의 기



오는 9월 새롭게 문을 열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투시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대극장 로비. 이곳에는 티켓박스가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종건 측은 지난해 12월 음향 시설 조사 차 서울 해오름극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공연장 내 오래된 천장, 벽체, 바닥 등은 모두 철거 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대극장 공사가 완료되면 관객들은 좀더 쾌적하고 음악홀의 기능이 향상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연업계는 대형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공사에 들어가는 소극장 역시 대극장과 마찬가지로 로비에 티켓박스가 새로 생길 예정이며, 객석, 의자, 바닥, 벽체 부분을 비롯해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 등을 교체한다.

다만 공연장 로비에 작품 정보를 볼 수 있는 스크린 화면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리모델링이 마무리 된 후 공연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종건 관계자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공연장 재개관에 맞춰 시립예술단 공연, 기획공연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새 봄이 돌아오니!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 상설공연, 5일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올해 첫 공연이 오는 5일 오후 5시 진악당에서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관객을 만나는 '국악이 좋다'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에 전통의 품격을 전하고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진악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새 봄이 돌아오니!'를 주제로 펼쳐진다. 풍류음악 관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을 시작으로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꼬꼬리의 자태를 무용화 한 무용 '춘앵전', 흥보 은혜를 갚기 위해 춘삼월에 보은포 박씨를 물고 오는 제비의 여정을 그린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봄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린 가야금중주 '춘설', 우리나라 사계절의 자연을 노래로 표현한 민요 '사철가', '신사철가', 신명나는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까지 다양한 성악, 기악, 무용 전통예술을 선보인다.

오는 12일에는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초청공연 '백화난란 百化爛爛'이 열리며 아정컴퍼니 초청공연 서의철 가단의 모노드라마 '웃장 속의 이야기' (19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봄이 오면 산에 들에' (26일)도 예정돼 있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무료관람.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90명 모집.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공연이 오는 5일 진악당에서 열린다.

논산에 띄운 '풍화, 아세안의 빛'

ACC재단, 연산문화창고 특별전 초청 4월3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난 2019년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풍화, 아세안의 빛'은 빛을 통해 하나 된 아세안을 기원한 전시였다.

'움직이는 매체예술(키네틱 미디어아트)'로, 당시 아시아문화원이 기획하고 미디어작가 그룹 사일로랩이 제작해 화제가 됐다.

'풍화, 아세안의 빛' 전시가 충남 논산에 초청돼 눈길을 끈다.

ACC재단은 '풍화, 아세안의 빛'이 오는 4월 30일까지 논산문화원의 연산문화창고 개관기념 특별전 '다시 봄, 다시 봄'에 초청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폐산업 문화재생공간인 연산문화창고와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을 대외에 알리고 문화관광도시 논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한편 '풍화, 아세안의 빛'은 2019년 한-아세안 30주년을 기념해 ACC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관객의 호평에 힘입어 부산 아세안문화원, 담양 담빛예술창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등 국내외에서 순회 전시되는 등 기업체와 문화기관 등에서 초청이 잇따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

김우경 초청 마스터 클래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마스터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성악 마스터 클래스'는 미래세대 성악자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기공연과 연계해 체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지도를 통해 지역의 성악가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오는 3월과 20일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에는 제9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 출연 예정인 테너 김우경(한양대 교수·사진)이 강사로 참여한다. 김우경은 한양대 음대와 독일 뮌헨 국립 오페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비엔나 벨베타데 국제 성악콩쿠르 1위, 바르셀로나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라리아 국제 성악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1대 1 개인레슨으로 진행하며 참여자 1인당 1회(40분) 수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영상심사를 통해 최대 12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사전접수를 통해 일반인, 성악도들의 참가(정장) 신청도 받는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613-824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화폭에 풀어놓은 유토피아의 세계

장연희 초대전, 28일까지 여수미술관

사람들은 저마다 유토피아를 꿈꾼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상상속에서 이상향을 그리며 현대인들은 위안을 받고, 팍팍한 삶에 활력을 얻는다.

서양화가 장연희 작가가 화폭에 풀어놓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다. 싱그러움과 그 속에서 노니는 사슴들을 통해 작가는 몽환적인 환상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장연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여수미술관(여수시 도원로 263-1)에서 열린다. 'NATURE 자연, 감성의 파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장 작가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구현한 이상향을 선보인다.

화사한 색감과 경쾌한 조형미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봄 냄새가 물씬 난다. 인간과 동물, 자연의 아름다운 동행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은 꽃과 나무, 사슴, 숲의 향기가 어우러져 독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림에 등장하는 숲속 풍경은 마치 꿈 속에서 본 듯하다. 작가는 유년 시절, 자연 속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즐거운 추억에서 길어올린 다채로운 풍경, 이야기들을 다양한 색감과 상징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두툼한 붓질이 인상적이며 인간 내면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낡은 칫솔을 활용해 거친 느낌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거친 붓질과 색의 대비로 몽환적인 풍경을 만드는 작가의 작품에는 무엇보다 사슴이 자주 등장한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체처럼 보이는 사슴은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다양한 표정과 몸짓 속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하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장 작가는 지금까지



'숲'

1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작가회, 아트포럼인 터네셔널, 예인회 회원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19년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전시 '풍화, 아세안의 빛'.

국립광주박물관, 지역 문화기관과 학술 출판사업 진행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박물관)이 지역 문화기관과 학술출판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박물관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박물관과 미술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광주·전남지역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학술출판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등록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기관 중 5개 기관을 선

정해 도록 및 연구서 발간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박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서 박물관은 도자문화 및 호남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를 매개로 박물관, 미술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장품 정보를 자료화해 공개함으로써 서비스 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